英艦에 積載된 후 印度洋 地中海를 거쳐 지난 中旬 英國에 安着하였으며 『런던』의 『빅토리아앤드알바트』博物館에서 全部解裝 點檢한 結果 아무런 損傷이 없었다한다。特히 이 解裝作業에 立會한 英國美術協會代辯人의 談話에 依하면 韓國文化財의 完全無缺한 包裝狀態에 모두들 感歎하였다한다。그리고 「런던」에서의 展示는 三月二十三日부터 五月 七日까지 「빅토리아 앤드 알바ㅣ트」博物館美術館에서 開催된다。

◎ 石窟庵保存問題座談會

오랜동안의 懸案으로 되어 있는 石窟庵保存問題를 促求하기 위하여 한국일보社主催로 一月 十五日 市內 「메트로 호텔」에서 關係者들이 모여 座談會를 열었다。이날 參席한 人士는 金元龍 徐廷德 全鎣弼 崔洛久 韓來源 黃壽永(司會는 한국일보社 文化部長) 諸氏이며 座談會內容은 한국일보 一月二十二日 朝刊에 揭載되어 있다。

—第二卷 第三號 通卷 八號—

瑞山開心寺의 靑銅銀人絲香垸

李 殷 昌

象王山 開心寺(雲山面 新昌里)에는 李朝初期의 大雄殿(國寶二三九號) 以外에 寺寶로서 香爐 一座와 金銅如來座像 ① 一軀와 庭中에 方形五層石塔 ② 一基가 傳하고있다。筆者는 兩次(一九四八年六月 一九六〇年十二月)에 걸쳐서 同寺를 調査한 바 있으므로 그 中의 一點을 紹介한다。

烏銅香爐라 傳稱되어온 此品에는 銀入絲의 彫鏤가 있고 口緣裏面에 點線銘文이 있어 開心寺라는 寺名이 보인다。形態는 高杯形으로서 身部와 臺座로 兩分된다。爐身은 盌形으로 廣幅의 口緣이 달려있고 臺座는 上促下寬의 柄部를 가진 圓盤形인바 그 頂部에는 圓帶와 받침形 小圓盤이 있어서 爐身內底와 連結되었다。即 身臺가 別鑄되었는데 臺盤이 寬大하여 上下의 均整과 安定感을 보인다。

銀入絲는 爐身에 있어서 重圈內의 太線卍字를 四處에 配置하였고 그 間地에는 細線牡丹紋을 넣었으며 口緣上面에 流雲紋 八個를 돌렸다。臺座에 있어서는 頂上받침部에 十五瓣仰蓮文을 돌렸고 그 밑의 圓帶에는 四個의 圓圈連續文을 돌렸다。柄部上部에는 八瓣伏蓮紋이 있는 바 長矩形의 瓣內에는 다시 紋樣이 細入絲되었다。下盤部에는 牡丹文 三個와 隆起된 周緣에는 雲文 八個가 各各 돌려있다。入絲의 技法은 細線이 主用되었는데 流麗溫柔하다。



이 香爐는 形態·構造·彫鏤 等에서 國寶香垸인 表忠寺 乾鳳寺 奉恩寺 等 所藏遺品과 같은 樣式系列에 屬하는 것이나 銀入絲의 技法이나 紋樣에서 보아서 低位에 두어야 할 것임에 그製作年代는 麗末鮮初로 推定된다。(總高二四㎝ 上徑二八·四㎝ 下臺徑一七·八㎝)

註 ① 螺髮·通肩結跏趺坐의 小像으로 高一九·五㎝ (李朝初)

② 基壇下甲石에 十六伏蓮文이 있고 塔身 屋蓋 各一石 옥개받침 三段이며 相輪은 一部殘存(高麗)

李朝白磁鐵砂葡萄文壺

全 鎣 弼

近者 偶然한 機會에 보기드문 優秀한 鐵砂葡萄繪圓型壺를 過眼하였기